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삼위일체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다함께
♠ 경배의 찬송	11. 거룩한 주님께
♠ 공동기도	다함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물로 받은 삶이건만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뒤로하고 추한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말씀의 길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 마음의 무릎 진실히 꿇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살갑게 하나되어 살아가게 하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교만과 편견과 아집과 오해의 담을 허물고, 겸손과 이해와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부와 성령과 하나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9:13
♠ 교 독 문	5. 시편 13편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문영혜 집사 II. 구성실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506.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성경봉독	I. 빌 2:1-11
	II. 시34:12-22
	이호원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낮아짐이 올바름
	김재흥 목사
	II.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70. 내 평생에 가는 길	다함께
헌금봉헌 (봉헌송: 류건형)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누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일상에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간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습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2남선교회 주최예배	6월 기도의 밤
말씀: 장현구 목사(영파교회)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이용한 장로	인도자 이형숙 집사

6월	영접위원	윤정덕	김중수	권혁순	곽혜자	박애순	이영란
	헌금위원	이용한	방문성	김인걸	김필순	송양진	박혜경

자연은 낭비를 모른다

내가 얘기를 잘 듣거나 말거나 어머니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씨앗은 나무에서 나와서 다시 나무가 되지. 씨앗이 씨앗을 맺는 건 덧없는 거란다. 씨앗에서 씨앗으로 변화할 뿐인데 거기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있겠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가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덧없는 거란다. 아마 개성은 실제이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지. 얘야, 네가 나 없이 존재하니? 네가 먹고 있는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있니? 네가 앉아 있는 땅이 없어도 살 수 있니? 우리가 가진 개성은 다른 것에 기대어 있단다. 그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지.”

어머니는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자이나교의 종교문학인 노래와 시를 많이 외우고 있었다. 어머니가 암송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영혼은 서로를 섬기게 한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씨앗을 이 시에 빗대어 말했다. “씨앗은 땅을 섬기고 땅은 씨앗을 섬긴단다. 나무는 땅에 그 잎을 떨구고, 땅은 나무에 영양분을 주지. 이렇게 해서 영혼은 서로를 섬기면서 자기를 실현하는 거란다.”

“어머니는 점심 안 드세요?”

“아니다, 오늘은 먹지 않는다. 난 지금 금식 중이거든.”

어느 날, 어머니와 나는 발가를 걷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었다. 뒤로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붉은 색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이건 신비란다, 얘야. 신비야.”

“마치 하늘에다 빨간 물감을 쏟아 놓은 것 같아요.”

“저 나무에 있는 벌집을 한 번 보렴.”

어머니는 아름다운 하늘보다 벌에 훨씬 더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 “벌들은 이 꽃, 저 꽃으로 다니면서 꿀을 조금씩 모으지. 그러면서도 꽃을 해치지 않는단다. 저들이 얼마나 점잖고 자제할 줄 아는지 알겠니? ‘저 벌이 와서 꿀을 훔쳐가요’ 하고 불평하는 꽃은 어디에도 없구나. 이건 마치 벌은 꽃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꽃도 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하지 않니? 하지만 인간들은 어떠니? 땅이 아낌없이 주는 걸 얻으면서도 한계를 모르고 땅이 고갈될 때까지 끝없이 가지려 하지 않니. 벌들은 꿀을 어떻게 하니? 저들은 식물을 가루받이시키면서

즙을 달고 맛있고 치료할 수 있는 꿀로 만들지. 얼마나 많은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자연이 주는 선물을 받으면서 지나치게 낭비해 심한 피해를 준단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연에서 배울 수 있으면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가질 테고, 꿀처럼 우리가 얻는 걸 좋은 것으로 바꾸고, 나뭇잎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좋은 일이 돌아올지도 모르지. 자연은 낭비를 모른다.”

가진 게 많으면 시간을 너무 빼앗긴다

현대사회는 자식들이 어머니를 인정하고 감사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인지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이런 걸 편치 않아 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장사에 대해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 감사했다.

“아버지께서는 늘 ‘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지역에 봉사한다’고 말씀하셨지.” 어머니는 예전 기억을 되살렸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거요. 사람은 벌이가 있어야 하고, 회계도 잘 맞추어야지. 안 그러면 파산할거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동기는 아니라고. 이익이 바퀴에 기름칠을 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바퀴를 굴리는 목적은 기름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생산해 내기 위해서니까. 이익은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친구를 사귀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재미있소.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요.” 이 말씀에 어머니는 대단히 행복해 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삶은 단순해야 한다고 믿었다.

“가진 게 많으면 시간을 너무 빼앗긴다”고 어머니는 확신했다. “항상 깨끗이 돌보고, 사용하고, 저장해야 하는데 언제 반성하고 명상하고 지역에 봉사할 시간을 낼 수 있겠니?”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많이 벌어들이지 않아도 그 일로 힘들어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자연을 걷지 않는 것에 실망했다.

■ 마/음/으/로/읽/는/글

오 늘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짜ق 웅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지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구상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재홍 최희영 이용한 오성희 윤석철 장혜숙 김인걸
 문영혜 김중수 이순정 김훈동 유경순 안종일 정현주 김준호 곽혜자
 김희진 박홍재 김성수 김애경 김용길 최영혜 박영숙 김 극 이은옥
 김지윤 김지호 염혜영 박홍엽 최인환 고광승 이춘희 노용래 강인식
 김정숙 박병선 조병무 송양진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윤주원 최윤선 이지훈 윤성중 김윤정 이동천 최윤희
 황경순 이응구 한선희 왕수명 이희균 김영한 유혜경 이경남 임 영
 정경례 서재홍 박현우 노미향 박병희

감사헌금:

이정은 김미순 김철수 유영남 문금석 박병희 곽혜자 김홍기 박재동
 이정민가족 무명2

생일감사헌금:

조윤경 김지호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수 회	노 봉 님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김 영 한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혜 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갑 재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오 복 순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이 형 숙
가버나움	구 성 실	안 홍 숙		구 명 자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옥 영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유 혜 경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삼위일체주일** :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 속에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그 평화를 맛보고, 세상에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3. **주최예배** : 오후 집회는 제2남선교회 주최로 드립니다. 영파교회 장현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4. **선교회장간담회** : 오후 3시 30분부터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신앙적 실천을 재다짐하는 시간입니다.
5. **기도의 밤** : 9일(수) 오후 7시 30분에 6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기도의 기쁨을 맛보려는 이들은 꼭 참석하십시오.
6. **환경회복세미나** : 1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7. **신앙실천** : 증오와 폭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마음을 다하십시오.

*헌화 - 윤정덕/구성실 장로 (결혼기념)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